
이슈브리프

2016. 9. 29

I. 트럼프의 대선전략과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이해 / 1

II.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 7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트럼프의 대선전략과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이해

전국여론조사(popular vote)에서는 클린턴의 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electoral college라는 미국대통령 선출과정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트럼프의 막판 역전 당선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특히 경제적 곤경의 원인을 이민자 유입과 NAFTA, 중국·한국 등과의 무역적자 등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 트럼프의 주장에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백인 중하층 남성 노동자들이 주축인 ‘트럼프 숨은 표’에 주목하여야 함.

1. 미국 大選 선거인단에 대한 이해

○ Electoral college로 불리는 州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 각 州는 그 주에 배당된 상원과 하원의원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배정 받고, 여기에 Washington, D.C의 3석을 합쳐 전국적으로는 538명의 선거인단으로 구성
- 538명의 과반을 넘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

○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제외한 모든 州들은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winner-take-all’ 제도 채택

- 예컨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당된 캘리포니아州에서 승리한 후보는 격차가 1%에 불과해도 州선거인단 55명 전원 획득

※ 참고로, Alaska 등 작은 州 여덟곳은 선거인단 수가 3명에 불과

○ 전국 득표수와 선거인단 확보 간에는 적지 않은 간극 존재

- 2000년 대선 당시, 전국 득표율에서는 48.4對47.9(%)로 표를 덜 얻은 부시가 electoral college에서 271對266으로 앞서 앨 고어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선출
- 역으로, 전국 득표수 차이는 크지 않는데 electoral college에서는 압도적 차이로 승리하는 사례도 있음
- ※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와 롬니의 득표율은 51對48로 3% 차이에 불과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332對206로 오바마가 압승

2. 美 대선 판세

○ 현재는 힐러리 클린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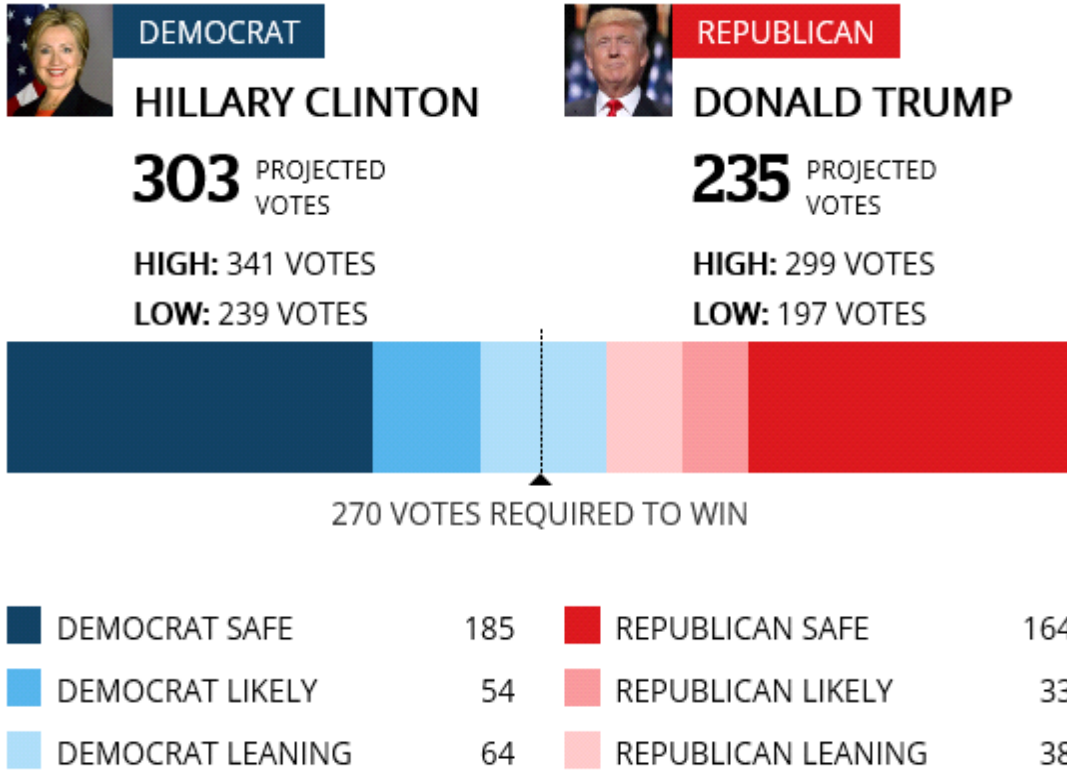
- 양당 후보가 확정된 6.15일 이후 여론조사상 클린턴의 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주별 선거인단 확보 CBC 전망치도 클린턴 우세¹⁾

○ 여전히 살아 있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 303對235로 클린턴 우세를 점치는 CBC 전망치는 주별 여론조사에서 1%라도 앞선 州들의 선거인단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

1) 조사시기와 매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popular vote와 electoral college 추정치 모두 클린턴 우세 지속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 <http://www.cbc.ca/news2/interactives/uspolltracker/>

- 산술적으로, 현재 클린턴 우세지역으로 분류되는 303석 중 35석을 트럼프가 가져간다면 승패가 바뀔 수 있음



주: 'leaning'은 두 후보간 격차 3.7% 이내, 'likely'는 3.7-8.2% 이내의 우세를 의미

- 트럼프의 역전 가능성은, 현재는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격차가 3.7% 이내인 64석이 걸린 'Democrat leaning' 州들의 선거 결과에 달려 있음

- 조사 시점과 매체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일단 CBC 추정으로는 미시건(16), 플로리다(29), 노스캐롤라이나(15), 메인(4)이 민주당 박빙 우세인 64개 선거인단에 속해 있음

- 트럼프가 미시건과 플로리다에서 역전에 성공한다면 여기에 속한 45명의 선거인단을 가져오게 되어, 현재의 303對235 열세 → 258對280 우세로 뒤집을 수 있음
- 물론, 그 전제는 현재 자신이 우위를 점한 지역에서는 모두 승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오하이오(18), 노스버지니아(6), 콜로라도(9), 뉴멕시코(5)의 수성여부가 관건

3. 트럼프의 ‘합리적’ 선거전략

- 트럼프는 현재 박빙우세인 오하이오를 지키고, 박빙열세인 미시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역전 여부가 승리의 관건
- 이 지역들 중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는 지난 대선에서도 각각 51對48, 50對49, 50對48로 승부가 갈린, 말 그대로 초박빙지역으로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 다른 핵심 선거주인 미시건과 박빙지역인 뉴멕시코까지 포함하여 이번 선거 승패를 좌우할 핵심 선거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왜 트럼프가 지금과 같은 선거전략을 구사하는지 이해 가능
- “흑인과 히스패닉, 이민자와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트럼프는 反이민, 反외국인, 反자유무역 언사를 구사

-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오하이오와 미시건, 범위를 조금 넓혀 펜실바니아, 위스콘신은 공히 'Rust belt' 지역에 속하는데, 이들 두 주도 경합상태
- 또 다른 핵심지역 플로리다와 뉴멕시코는 이민자 유입 문제가 최대 현안인 지역
- 이들 핵심지역들의 공통점은 자유무역 또는 외국과의 경쟁, 이민자 유입의 가장 큰 피해지역들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백인 중하층 남성 노동자층이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타겟층
-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의 반이민자, 외국인 혐오, 반자유무역적 발언 등은 그의 필승방정식의 핵심적 요소이며, 자유무역(구체적으로는 NAFTA와 중국·한국 등과의 무역적자)을 비판함으로써 자유무역의 직접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백인 중하층 남성 노동자들의 표를 획득 하려는 전략

4. '트럼프 숨은 표'는 존재하는가?

- 현재 popular vote와 electoral college vote 모두에서 열세인 트럼프의 막판 역전 가능성은 결국 '트럼프 숨은 표'의 규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구체적으로는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플로리다와 뉴멕시코에서의 숨은 표 규모

○ 특히 경제적 곤경에 처한 백인 중하층 남성 노동자들이 트럼프 숨은 표의 주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이들은 경제적 곤경의 원인을 이민자 유입과 NAFTA, 중국·한국 등과의 무역적자 등 외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트럼프의 주장에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차별논란으로 인해 드러내 놓고 트럼프 지지 표명을 주저하는 상황

○ 이러한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소위 '숨은 표'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비례하여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결과의 간극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트럼프 지지층이 클린턴 지지층 보다 투표율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는 변수

[작성: 김장수 연구위원 ☎ 02-2070-3322]

II.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한·중 양국은 사드 갈등을 넘어서 당면한 여러 경제적 협력과제를 가지고 있음. 중국은 서방의 우려와 달리, 구조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착륙 리스크는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임. 이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한·중 FTA 후속협상 조기 착수를 비롯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新공급능력 확대 및 중국의 新동북진흥전략에 따른 동북3성 개발사업 참여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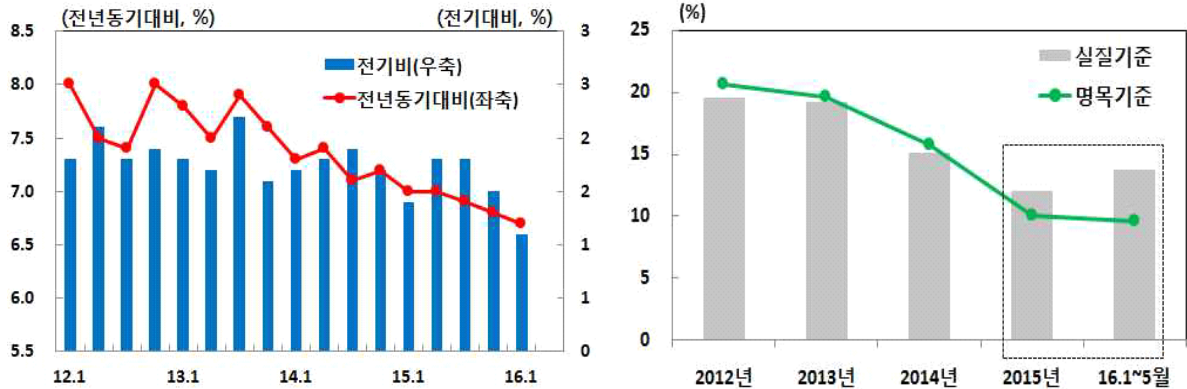
1. 중국경제의 주요 동향 및 전망¹⁾

- 2016년 중국경제는 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졌으나, 적극적 거시정책, 부동산시장 호조, 디플레이션 압력 약화 등으로 경착륙 리스크가 완화
 - 경제성장률 둔화세 지속
 - 실질GDP 증가율 : 2012~13년(7.7) → 2014(7.3) → 2015(6.9) → 2016.1/4분기(6.7%)
 - 적극적 거시정책²⁾ 등으로 고정투자 둔화폭은 축소되고, 소매판매는 두자리 수 이상 증가
 - 제조업투자 부진(2015년 8.1→2016.1~5월 4.6%)이 이어졌으나, 부동산 개발 투자 회복(1.0→7.0%), SOC투자 확대(17.3→19.8%)로 고정투자 둔화폭은 축소(10.0→9.6%)

1)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6.7), “2016년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점검”에서 발췌

2) 중국지도부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경기부양보다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의 본격적인 추진을 시사; “공급측 구조개혁의 주요 추진방향은 공급과잉 축소, 유효공급 확대, 수요 변화에 대한 공급구조의 적응력 제고이며 이를 위해 5개 과제를 중점 추진”(시진핑 주석,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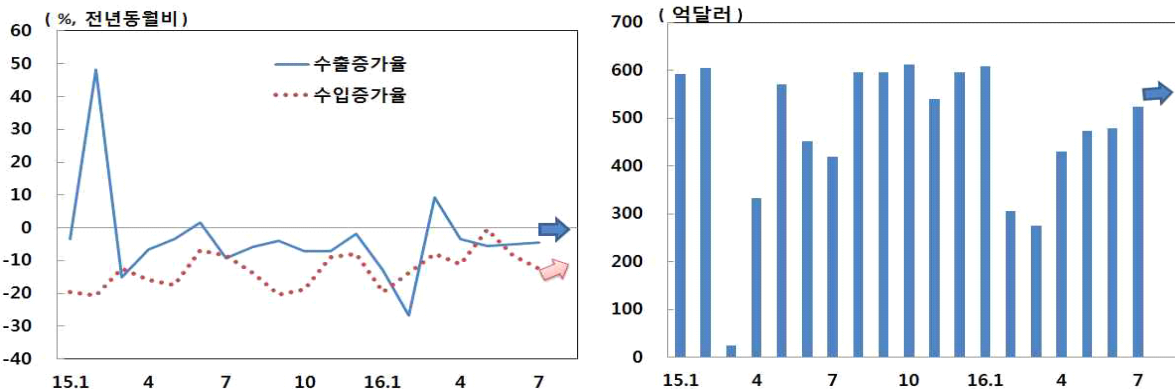
[그림] 중국의 GDP 및 고정투자(右) 증가율



출처: 한국은행 자료(중국 국가통계국, Wind) 재인용

- 상품판매(2015년 12.2→2016.1~5월 10.6%)와 외식업판매(11.7→11.3%)를 중심으로 소매판매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폭 다소 축소(10.7→10.2%)
- 수출은 대외수요 부진 등으로 지난해 6월 이후 감소세 지속(2015년 -2.9 → 2016.1~5월 -7.3%)
- 수입증가율은 국제원자재가격의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2015년 -14.3 → 2016.1~5월 -10.3%)되었으며 무역흑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2015.1~5월 2,126 → 2016.1~5월 2,175억 달러)

[그림]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左) 및 무역수지



출처: 한국은행 자료(중국 해관총서) 재인용

- 고용사정을 보면, 신규취업자수 등 고용지표는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 지속

- 올해 1~6월 중 신규취업자수(도시)가 71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718만명)이며, 연간 목표치인 1,000만명 달성이 무난할 전망

- 소비자물가의 상승폭 확대(2015년 1.4 → 2016.1~6월 2.1%), 생산자물가의 하락폭 축소(-5.2 → -2.6%) 등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

-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2015년 -0.5 → 2016.1/4분기 +0.5%)

○ 2016년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6.7% 내외)보다 다소 낮은 6.5~6.6% 수준으로 예상

- 그러나 최근 ADB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의 전망치는 당초보다 같거나 높게 예상 : 중국인민은행(6.8 → 6.8%), 10개 중국금융기관(6.6 → 6.7%), IMF(6.3 → 6.5%), OECD(6.5 → 6.5%), 10개 국제투자은행(6.4 → 6.5%)

- 수요 부문별로는 소매판매, 고정투자 및 수출입이 모두 상반기에 비해 부진하겠으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하방압력을 일부 상쇄할 전망³⁾

- 소득증가세 둔화 등으로 상품 소비 증가가 제약되겠으나, 소비구조 변화로 외식·여행·교육·의료 등의 서비스 소비는 안정적 증가세 지속 예상

※ 명목가처분소득 증가율 : 2014(10.1) → 2015(8.9) → 2016.1/4(8.7%)

- SOC투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제조업투자 부진도 다소 완화되겠으나,

3) 중국정부는 PPP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과 적극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공급측 구조개혁을 가속해 나갈 전망(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9.6);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위한 부문별, 지역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의 일정과 순서에 따라 이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시진핑 주석, 8.31)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고정투자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

- 식품가격 안정으로 당분간 1%대의 상승률을 보이겠지만, 완화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어 연간으로는 2% 내외 상승 예상
 - 미연준의 금리인상, 유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수출입은 상반기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성장경로에 있어서는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의 파급효과, 제조업 및 민간 투자의 회복여부 그리고 신흥국 환율 불안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⁴⁾
- 연간으로는 6.6% 내외 성장하여, 정부 목표(6.5~7%)에 부합 예상

2.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 대외경제분야 개혁 목표 및 과제

- 공산당 18기 3중전회,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 통과(2013.11)
 -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以開放促改革)
- 전인대 14기 4차 전체회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강요” 통과(2016.3.15)
 - 新대외개방체제 구축 목표 아래 ‘一帶一路’를 핵심으로 하는 대외개방전략 추진

4) “안정적 성장기반이 아직 확고하지 않고 다양한 리스크요인이 잠재해 있으나, 적극적 재정정책의 여지 등을 감안할 때 경착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리커창 총리, 6.27)

○ ‘商務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발표(상무부, 2016.7.12)

- (무역) 優進優出 전략을 통해 무역구조 업그레이드,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교역 확대
 - 상품무역 : 2015년 실적(3조 9,600억 달러) → 2020년 목표(세계수출 증가율 이상, 수입규모 확대)
 - 서비스무역 : 2015년 실적(7,130억 달러) → 2020년 목표(1조 달러 이상)
- (해외투자) 국경 간 투자 완비 등 외자 이용의 효율성 제고, 투자의 상호 연계성 강화, 합작산업구 건설 등을 위한 一帶一路 추진
 - 해외투자(ODI) : 2015년 실적(1,275억 달러) → 2020년 목표(7,200억 달러, 누적)
 - 외국인투자(FDI) : 2015년 실적(1,356억 달러) → 2020년 목표(6,300억 달러, 누적)

○ 2016년 대외경제정책 방향 ‘정부공작보고(2016.3.5)’

- 일대일로 건설의 건실한 추진, 글로벌 산업협력 확대, 대외무역의 혁신발전 촉진 및 수출입 하락세 통제, 외자 이용수준 제고, FTA 전략 실시 가속화 등의 추진방향 제시

<표> 2016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업무 중점	주요 추진 조치
일대일로 건설의 건실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경제회랑과 해상협력 거점 건설 • 변경 경제협력구 · 국경간 경제협력구 · 해외 경제협력구 건설
글로벌 산업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의 중대 시범 프로젝트 실시, 장비 · 기술 · 표준 · 서비스 해외 진출 • 재정 및 금융지원정책 실시, 인민폐 해외협력기금 설립 및 양자 산업협력기금 활용
대외무역의 혁신발전 촉진 및 수출입 하락세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제도 정비 : 수출입 하락세 통제, 수출 환급세 제도 개혁, 단기수출신용보험 규모 확대 •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전자상거래 시험 확대, 수출상품의 해외물류창고(海外倉) 건설 • 무역구조 고도화 : 서비스무역, 서비스 Out-sourcing 시험도시 확대, 가공무역의 증서부 이전 • 무역편리화 : ‘단일창구’ 전면 실시, 수출상품 검사율 축소 • 적극적 수입정책 강화 : 선진기술장비, 핵심 부품, 원자재 및 원료 수입 확대
외자이용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진입제한 완화, 서비스 및 일반제조업 개방 확대, 투자절차 간소화 • 내륙과 변경지역 개방모델 혁신, 새로운 외향형 산업클러스터 조성, 외자의 증서부 투자 유도 • 자유무실험구 시범지역 확대 • 공평 ·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
FTA전략 실시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EP 협상, 한중일FTA 협상 가속화, FTAAP전략 연구 강화 • 중미 및 중EU 투자협정 협상 추진 • 무역투자자유화 추진, 균형 · 공영 · 포용의 국제경제무역체제 공동 구축

출처: KIEP 북경사무소 자료(2016.8) 재인용

○ 新동북진흥 전략 실시방안 발표(2016.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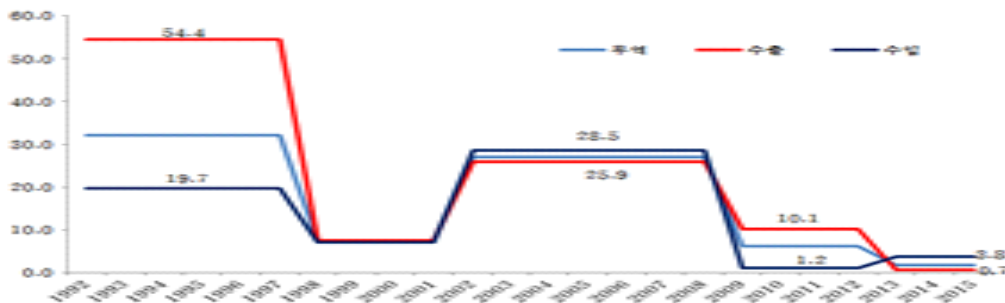
- 중국정부는 향후 3년간(2016~18년) 추진할 ‘동북진흥 실시방안’ 발표
 - 137건의 핵심 업무로, 연도별(2016년 85건, 2017년 33건, 2018년 32건)로 세분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투자규모는 1조 6,000만 위안(한화 약 270조원)에 이를 전망
 - 2016년 62건, 2017년 33건, 2018년 32건 등 총 127건 대형프로젝트 시행 계획 구체화, 주로 교통인프라, 에너지, 수리시설 등 분야에 집중
- 올 4.26일 발표된 ‘新동북진흥전략’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임

3. 한·중 경제협력 현황

○ 한·중 교역의 低성장기 진입

- 한·중 교역 증가세 급감, 우리의 시장점유율 회복했으나 對中무역 흑자비율 축소
- 한·중 교역 규모는 2015년 2,274억 달러로 전년대비 3.4% 감소
 - ※ 교역증가율 : 2001~08(27.0) → 2009~12(6.3) → 2013~15(1.9%)

[그림]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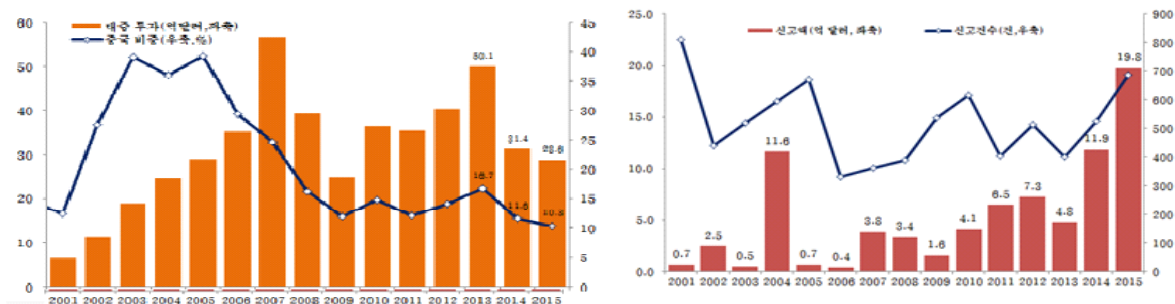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 중국 수입에서의 한국M/S : 2006(11.6) → 2010(9.8) → 2015(10.4%)
- 한국의 對중국 무역 흑자비율은 2013년(27.4%)을 정점으로 감소, 2015년 현재 20%까지 추락
- 對中 수출의 구조적 취약성, 높은 對중국 수출의존도(2015년 26.0%) 등의 문제점 노정⁵⁾
- 가공무역 중심 구조로 중국 내수시장에의 접근성 취약
 - ※ 가공무역(49.6%), 보세무역(15.7%), 일반무역(34.0%)
 - ※ 가공단계 : 중간재(79.6%), 자본재(14.7%), 소비재(5.6%)
- 在中 한국기업의 부진 : 자동차, 휴대폰 등

○ 한·중간 투자는 성숙기 진입

- 우리의 對중국 투자는 2015년末 현재 529억 달러(투자기준)이고, 중소기업·가공무역형 투자에서 대기업·내수형 투자로 전환 중
- 중국의 對한국 투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⁶⁾, 2015년末 현재 81억 달러(신고기준), 45.5억 달러(도착기준)

[그림] 한국의 대중 투자(左), 중국의 대한 투자(억 달러)



출처 : KIEP 북경사무소 자료(2016.8) 재인용

5) 우리나라의 월별 對중국 수출은 지난해 7월 -6.5%를 시작으로 올해 7월 -9.4%까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
 6) 2016년 1-7월 동안 중국 FDI 규모는 771.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 증가(중국 상무부)

4.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

○ 중국내 안정적 M/S 유지 전략

- 단기적으로 한·중 FTA 후속협상 조기 착수
- NTB(기술무역장벽), 지적권 보호, 세관별 상이한 업무처리에 대한 협상
- 한·중 협력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표> 한·중 협력 프로그램 현황

합의분	주요 내용	담당 기관
한중 FTA 이행을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 MOU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적 교환 및 FTA 원산지 검증 상호지원	관세청 해관총서
한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2016-2020)	- 양국간 중장기(2016-2020) 경제무역협력 방안에 대한 비전 설정	외교부, 상무부
제조업혁신 3.0 전략과 중국제조 2025 간 연계 협력 MOU	-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정책과 우리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협력 · 양국 제조업 정책 교류, 친환경 제조, 스마트 제조, 로봇개발·활용 및 표준화, 디자인 분야 연구, 스마트공장, 친환경 공장 · 공동 작업반 설치(국장급 실무 협의체) 등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공업신식화부
한중 산업협력단지 관련 MOU	- 한중 산업단지 설립·운영·개발 협력 · 산업단지: 새만금, 엔타이(烟台)·옌칭(鹽城)시·광둥(廣東)성	산업통상자원부 상무부
혁신창업 MOU	- 창업공간 제공, 창조혁신 지원 조직 활용, 창업경진 대회 - 한·중 공동혁신창업프로그램 등 포괄적 협력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부
제3국 시장 협력 진출에 관한 MOU	- 제3국의 인프라, 플랫폼 시장에 한국의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 - 중국의 금융조달 능력 등 강점을 결합하여 공동 진출	기재부·산업부 발개위·상무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일대일로 간 연계 MOU	- 양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연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가능	기재부 발개위
한중 투자협력기금 공동연구에 관한 MOU	- 제3국 공동진출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산업부 상무부
통화 및 금융협력 합의문	- 원화의 국제 활용도 제고 및 우리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여건 마련 ·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기획재정부 인민은행

출처: KIEP 북경사무소 자료(2016.8) 재인용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입대체에 대응, 중국 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新공급능력 확대**
- 중국의 경제전략(중국제조2015, 인터넷+ 등)에 따라 제조분야에서의 새로운 공급능력 배양
- ※ 중국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차이나 인사이드'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긴요

7) KOTRA 베이징무역관(2016.7), “對중국 수출, 회복되지 않는 까닭은”

※ 최근 중국은 성장속도의 둔화와 함께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책담당자들과 산업일선에서는 중국의 변화를 이해하고 산업구조 재편 등의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⁸⁾

- 중국의 一帶一路와 글로벌 산업협력에 부응

<표> 한·중 경제무역발전공동계획(2016~20)

분야	협력 목표	주요 내용
경제협력 3대 목표	교역, 투자, 인적교류 확대	· 2020년까지 3,600억 달러, 상호 직접 투자 35억 달러, 인적교류 1,600만 명 · 서비스 무역 확대 등
산업·기술	산업·기술협력 심화	· 한중 관계 발전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산업·기술협력 · 중국제조2025, 인터넷+ 등의 산업정책 연계 · ICT 등 미래 성장산업에서 R&D 협력 강화 · 창업인력 협력 및 연구인력 교류
제도·정책분야	금융협력	· 한국의 위안화 역외 센터(허브) 발전에 협력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협력 제고	· 한중산업단지 등 양국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개방형 경제 시범특구 지향 · 한중 우호주간 행사의 내실화 및 사업 확대
지역·다자차원	지역·다자협력 제고	· AIIB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로 사업기회 창출 · AIIB와 동북아개발은행 연계 추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연계 · 일대일로 사업의 다각적 접근: ICT, 의료부문에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제3국 공동진출 시범 협력사업의 성격도 가짐)

출처: KIEP 북경사무소 자료(2016.8) 재인용

○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 확대

- 한·중 인적 왕래 확대, 금융 및 자본시장 협력 강화, 서비스 무역 확대 가능성
-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통화 SWAP, 위안화 무역결제 증대, AIIB 창립회원
- 중국자본의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진입 확대

8) KDI(2016.9),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국내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중국 新동북진흥전략에 따른 동북 3성 개발사업 참여방안 강구

- 同전략이 중국 정부차원의 신흥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民官 협력 하에 참여 검토
- 앞으로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 전문 방안’, ‘동북지역 공급측 개혁 정책’ 등을 속속 발표할 예정(중국 국가발개위)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요구됨⁹⁾

[작성: 하현철 연구위원 ☎ 02-2070-3315]

9) KOTRA 베이징무역관(2016.9), “중국 新동북진흥전략 실시방안 발표”